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수업 실천 분석 연구 - 인간관계에서의 생활습관 문화를 중심으로 -*

김다원** · 허신혜***

요약

본 연구는 한·일·중 학생들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습관 문화 인식 결과 자료를 활용한 수업 실천 사례 분석이다. 본 수업의 특징은 다음 2가지였다. 첫째, 관용과 배려의 태도를 길러 상호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는 문화다양성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회적 적실성을 제고해 줄 문화 요소로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수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후,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향상되었다. 흥미와 관심도의 향상은 양국에 대한 지적 확장 및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문화다양성 교육의 영역을 전통 문화와 산업 관련 생활 모습 중심에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라는 일상생활 영역으로의 외연적 확장을 가져왔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3년간 추진한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한·일·중 학생 설문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활용한 연구임을 밝힙니다.

** 가톨릭대학교 교육전담교수

*** 한남대학교 조교수

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공통의 문화를 지닌 동아시아 문화권 지역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생활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으로서의 인식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수업이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동시에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수업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의의가 있음을 대변한다.

주제어 : 동아시아 문화, 인간관계, 생활습관 문화, 문화다양성, 사회과 교육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 교육은 다문화 사회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시민 교육의 전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생활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교육 영역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다양성’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도 연관되어 집단과 사회, 국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류 공존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다원, 2010, 86). 본격적인 세계화시대에 입문하여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에게 세계 지역 사람들의 생활습관 문화 교육은 상호교류의 활성화 뿐 아니라 상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요구되어지는 내적 힘이 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사회를 생각해볼 경우,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 기초 지식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기초 지식이다(諏訪哲郎, 2008, 167). 그래서 諏訪哲郎(2008, 168)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으로 ‘동아시아 지리’ 수업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일·중 3개국의 협력하에 ‘동아시아 지리’의 공통교재를 작성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수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창숙(2012, 217)도 한중일 삼국간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동아시아 공동체’로서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한·일·중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다원(2011)은 동아시아 각국은 유교 문화의 공통의 문화권 안에서 각국의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공간의 차이에 따라 어떤 다른 문화가 발달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특히 생활습관 문화는 만남의 지속성과 상호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가장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할 문화임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간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권으로서 갖는 동질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으로서의 동질적인 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화 교육에서 나아가 다른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한·일·중 간 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은 동아시아 문화권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자, 유교, 불교, 벼농사 지역의 공통된 문화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교육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같은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흔히 나오는 대답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쌀을 주식으로 한다”, “유교적 예법을 갖고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대답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구체적인 생활습관과 인간관계에 대한 의식은 많이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유된 보편적인 핵심 문화로서 유교 전통이 있지만 동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그 문화적 실천 내용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류제현, 2007, 729). 즉, 동아시아는 커다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관용은 차이에 대한 지식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공통의 휴머니티에 대한 인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Standish, 2009, 92)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해 서로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은 자명해 진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 간 교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수준에서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각 개인은 서로 다른 관습·행동양식·가치를 갖는 ‘인간 접촉’의 경험 기회가 확대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경험과 동시에 봉착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통해 세계인으로 성숙하게 된다(권오정, 1998, 11).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인간 접촉’에서 서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과 태도 육성이 필요하다. ‘인간 접촉’에서 서로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서로간의 원만한 상호 이해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 접촉’ 경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확인과 인정의 자세, 그리고 동질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문화권내에서 상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인식은 문화 실천 차원의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 문화는 사람들에 의해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며 상징과 상상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며 같은 문화체계 일지라도 그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리 실천되는 것이며 동일한 형태라도 그 실천의 내용과 의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김광억, 1998, 21). Hall(1997)도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구현된 표상으로서 문화를 통해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사회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국가에 대한 지식과 안목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간 문화지리는 먼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실행과 사람에 관해 배우는 데는 관심이 적었다. 대신 문화 그 자체를 배우는데 더 주력해 왔다. 이제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들의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태도 형성 관련 학습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의 차이는 문화의 실천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미야지마 히로시와 미조구치 유조는 이제는 동아시아를 어떤 고정된 실체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유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와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상대국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자신안의 차이를 발견하는 상대화의 시각이 동아시아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다(황지숙, 2007, 85에서 재인용).

특히 한·일·중 삼국은 거리상 가장 가깝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여 문화적 유사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에 걸친 식민의 역사와 같은 끝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의한 갈등,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갈등, 북한관련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상호 문화 이해 교육 보다는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개인 대 개인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서로의 다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서로 같은 점을 찾아서 보편적인 인류로서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범위 안에서 다르면서도 같은 문화권에서 숨쉬고 있다는 동질성을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유교문화는 생활습관과 인간관계적 측면에서의 예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 문화권 안에서 공통적인 문화를 찾아보면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또한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가면서 서로의 행위를 이해하게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가면서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실천 사례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접근은 어떠한가?

둘째,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한·일·중 삼국의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인간관계에서의 생활습관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수업 실천 사례의 의의 분석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수행한 한·일·중 중학생

들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자료¹⁾에 의거하여 수업 실천 결과 분석이다. 본 수업 실천을 통해 한·일·중 상호이해 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전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유교적 문화권의 동질성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는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수업 교안화 단계였다. 세 번째 단계는 위의 두 단계들을 거쳐서 만들어 낸 교안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고,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검토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분석이었다.

동아시아 문화권 중 유교 문화권과 관련된 소재를 찾아내는 단계에서 가족관계에서는 조상 숭배 의식을, 친구관계에서는 친구 간 행위에 대한 의식에 주목하고 학생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의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고려하였다. 그래서 ① 가족관계 인식: 할아버지 생신 행사 참여, ② 친구관계 인식: 친구 간 물건 빌려 사용하기 행위, 약속 시간 지키기 행위를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①과 ②의 소재를 활용하여 인

1) 본 연구에서의 설문 자료는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3년간 추진한 한·일·중 상호이해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한·일·중 학생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 실시 시간 및 설문 대상

한국: 2011년 9월~11월 실시, 수도권 소재 대도시 지역 중학교 1학년생 200명

일본: 2011년 6월~9월, 니가타현 지역 중학생 119명, 도쿄소재 지역 중학생 80명

중국: 2011년 6월~9월, 베이징 지역 중학생 162명

간관계와 관련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삼국 학생들의 생각과 판단 결과가 수업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안을 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삼국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보는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 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의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수업의 방법 측면에서 삼국의 문화를 결과론적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보다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확인해 가는 과정 자체가 수업 과정 속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내린 판단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공통점이 되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판단의 과정과 맥락에 초점을 두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국가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화의 차이, 혹은 지역적인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차이가 어떤 맥락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각국의 차이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도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생겨나는 이유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실천은 중학교 2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다.²⁾ 수업 시기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에 블러타임으로 2차시를 한번에 실시하였다. 수업 전과 후 반응 분석은 수업 전의 반응 분석은 3월초

2) 수업 대상 학생들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비교집단과의 차이점 비교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본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학생들의 설문 반응을 실시하였다. 수업 후 반응 설문은 3월 말에서 4월 초 수업 직후에 실시하였다.

II. 연구 절차

1. 수업 교안 개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 관련 행위를 토대로 한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교안을 개발하였다.

가. 수업교안 개발 시 유의점

3국 학생들의 인간관계에서의 생활 습관에서 오는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상호 이해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국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나. 수업교안 개발

학생들에게 우리와 가까운 일본과 중국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족 및 친구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공통점을 가상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깨닫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련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 실시한 결과를 소개하여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 있는

한·일·중이지만 사람들간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구성하였다.

2. 수업 실천

수업은 2개 반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업 전 반응 설문은 중학교 2학년 2개반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학년에서 사회과 세계지리 수업이 마무리 된 2학년을 대상으로 미리 일본과 중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반응, 그리고 관심 분야를 설문조사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리고 수업 중에는 일본, 중국 학생들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도록 하였고, 수업 후에는 수업 전에 설문했던 동일 내용을 가지고 흥미와 관심도를 조사하였고 수업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 대해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그림 2 참조).

1. 일본과 중국에 대해 흥미나 관심이 있습니까?					
일본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편이다	⑤ 전혀없다
중국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편이다	⑤ 전혀없다
2. 일본과 중국에 대해 특별히 흥미나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면 세 개씩 기술해 주십시오.					
일본에 대한 것					
중국에 대한 것					

[그림 1] 수업 전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설문 내용

1. 일본과 중국에 대해 흥미나 관심이 있습니까?

일본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편이다	⑤ 전혀없다
중국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편이다	⑤ 전혀없다

2. 본 수업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을 써 봅시다.

[그림 2] 수업 후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설문 내용

가. 수업 전 설문 반응 분석

수업 전 설문 반응 분석은 <표 1>과 같다. 일본에 대한 흥미나 관심에 대한 분석 결과, 14.3%는 “흥미나 관심이 전혀 없다”, 34.3%는 “흥미나 관심이 없는 편이다” 40%는 “보통이다” 7.1%는 “흥미나 관심이 있다” 4.3%는 “아주 많다” 라고 응답하였다. 11.4%의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분석에서는, 20.0%는 “흥미나 관심이 전혀 없다”, 28.6%는 “흥미나 관심이 없는 편이다” 44.3%는 “보통이다” 4.3%는 “흥미나 관심이 있다” 2.9%는 “아주 많다” 라고 응답하였다. 중국에 대해 흥미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7.2%였다. 일본에 비해 중국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더 적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편이다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때, 일본은 48.6%, 중국도 48.6%로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흥미나 관심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일본과 중국에 대해 특별히 흥미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서술 결과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방사능,’ ‘만화,’ ‘혼다,’ ‘애니메이션,’ ‘지진,’ ‘화산,’ ‘라면,’ ‘요리,’ ‘우동,’ ‘샷포로,’ ‘게임,’ ‘온천,’ ‘전자

기술,' '초밥,' '학교생활' 등을 14명의 학생들만이 서술하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흥미와 관심거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학생들의 서술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주요 흥미와 관심 대상은 일본의 음식 문화, 화산과 지진 관련 내용, 전자산업, 게임 관련 내용 등이다. 이는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접했던 일부 일본 문화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의 문화에 해당한다. 중국에 대한 흥미나 관심 분야는 '사막,' '음식,' '만리장성,' '많은 인구' 등이며 9명의 학생들만이 서술하였다.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흥미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를 통해 접했던 일부 중국 문화에 한정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흥미나 관심도가 낮은 만큼 관심 대상에 대한 범위도 아주 제한적이며 보편적으로 알려진 일부의 사실들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수업 전 학생들의 반응 분석(%) N=70

흥미와 관심도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보통 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다
일본	4.3	7.1	40.0	34.3	14.3
중국	2.9	4.3	44.3	28.6	20.0

〈표 2〉 일본, 중국에 대한 흥미, 관심 내용 분석(%) N=70

국가	관심 또는 흥미 있는 것
일본	지진(14.3), 애니메이션(10.0), 라면요리(7.1), 화산(5.7), 방사능(4.3), 만화(2.9), 우동(2.9), 온천(2.9), 게임(2.9), 혼다(1.4), 샷포로(1.4), 전자기술(1.4), 초밥(1.4), 학교생활(1.4)
중국	사막(10.0), 음식(4.3), 많은 인구(4.3), 만리장성(2.9)

나. 수업 실천

중학교 2학년 2개반 70명을 대상으로 45분 수업 2차시를 블록타임으로 실시하였다. 1차시에서는 한·일·중 가족관계에 대해, 2차시에서는 한·일·중 친구관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수업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학생들에게 ① 가족관계 인식: 할아버지 생신 행사 참여, 노인들과의 대화 ② 친구관계 인식: 친구간 물건 빌려쓰기 행위, 약속 시간 지키기 행위관련 미리 제작된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그림 4] 참조),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부록: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의 설문 결과표 참조).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의 생각과의 차이점과 유사한 점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3. 수업 후 반응 분석

가. 관심 및 흥미도 변화

수업 후 반응 분석도 수업 전 반응 분석 학생들과 동일 학생들인 2개반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일본에 대한 흥미나 관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참여한 70명 중 14.3%는 “흥미나 관심이 전혀 없다”, 34.3%는 “흥미나 관심이 없는 편이다” 40%는 “보통이다” 7.1%는 “흥미나 관심이 많다” 4.3%는 “아주 많다” 라고 응답하였다. 중국에 대한 분석에서는, 참여한 70명 중 20.0%는 “흥미나 관심이 전혀 없다”, 28.6%는 “흥미나 관심이 없는 편이다” 44.3%는 “보통이다” 4.5%는 “흥미나 관심이 많다” 2.9%는 “아주 많다” 라고 응답하

수업 과정	
학습목표	① 한·일·중 친구들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의식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한·일·중 인간관계에서의 생활습관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③ 한·일·중 상호 문화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준비물	- 교사: 설문지, 학습지, 일본과 중국 친구들의 설문 결과 - 학생: 학습지, 필기도구, 색연필
도입	* 한·일·중 간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여 마인드 맵으로 정리한다. *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적어 보자(그림 4, [그림 5]).
활동절차	할아버지 생신 축하 파티에의 참석과 할아버지 생활경험과의 대화, 친구의 요구 사이에서 친구들의 생각과 친구 물건에 대한 행위와 친구간 약속 시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① 4명이 한 모둠을 구성한다. ② 각자 다른 모둠 친구들에게 가서 가족관계 인식과 친구관계 인식 설문을 하여 그 결과를 적는다. ③ 인터뷰 결과를 모둠별로 정리하고 정리한 결과를 발표한다. ④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표로 다시 정리하고 일본과 중국 친구들의 생각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 ⑤ 자신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 그리고 일본, 중국 친구들의 생각과 비교해 본다.
유의사항	① 할아버지 생신 축하 행사에의 참석, 할아버지 경험과의 대화와 친구의 요구 사이에서 내린 의사결정과 마음, 친구간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일·중 간 가족과 친구간의 인간관계에서의 생활습관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절대 문화의 우열을 따지지 않도록 한다.

[그림 3] 수업 교안

【자료 1】

오늘(5월 31일)은, 중학생인 Y의 할아버지 생신입니다.

저녁에 Y의 집에서는 가족과 친척이 모여서 생일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Y는 할아버지 생일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인 K가 함께 축구를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그 친구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한참 축구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할아버지 생일파티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Y는 친구인 K에게 「미안해, 오늘은 할아버지 생일파티가 있어서 이제 가야 해!」 라고 하고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친구와 축구를 하느라 늦어졌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Y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할아버지의 생일파티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벌써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Y의 가족과 친척은 생일파티의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1】

Y가 할아버지의 생일파티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A~E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 주세요.

- A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B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 C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D 괜찮다

【이유】

【문제 2】

할아버지의 경험(체험)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A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 중요한 편인 것 같다
- C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D 중요하지 않다

【이유】

[그림 4] 사례 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설문지

였다. 수업 전과 비교하여 일본과 중국 모두에서 흥미나 관심에 대해서 ‘아주 많다’와 ‘많다’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응답에서 일본은 14.4%, 중국은 4.2% 상승했다.

【문제 1】

수업 중, 친구가 여러분의 필통에서 말없이 볼펜을 꺼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A 친구라고 해도 실례되는 행위이다. B 기분이 좋지 않다.
C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D 친구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유】

【문제 2】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친구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A 제 시간에 맞춰 오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B 5분 정도 늦는 것은 괜찮다. C 15분 정도 늦는 것은 괜찮다.
D 30분 정도 늦어도 괜찮다.

【이유】

[그림 5] 사례 2: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설문지

〈표 3〉 수업 전과 후 학생들의 반응 변화 분석(%) N=70

흥미도와 관심정도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보통 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다
일본	수업전	4.3	7.1	40	34.3	14.3
	수업후	7.1 (▲)	18.6(▲)	45.7(▲)	21.4(▼)	7.1(▼)
중국	수업전	2.9	4.3	44.3	28.6	20.0
	수업후	4.3(▲)	7.1(▲)	51.4(▲)	22.9(▼)	14.3(▼)

* ▲(증가) ▼(감소)

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본 수업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을 써 봅시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한·일·중 간 인간관계 문화가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질문: 본 수업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을 써 봅시다.

- 사례 1.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일본 문화, 중국 문화가 우리 문화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사례 2.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일본, 중국과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과 문화가 많이 다를 것을 알게 되었다.
- 사례 3. 우리나라도 문화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도 아주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 사례 4. 한·일·중 모두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 사례 5. 일본 친구들의 조상에 대한 생각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함을 알게 되었다.
- 사례 6.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니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사례 7. 일본 문화와 우리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사례 8. 일본을 여행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 사례 9. 일본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기쁘다.
- 사례 10. 일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 사례 11. 친구간의 행동이 일본이나 중국 친구들에게 실례되는 행동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사례 12.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예의범절이 바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친구들의 할아버지 생신에 대한 예의범절과 친구간의 예의범절에 놀랐다.
- 기타 사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가깝고 같은 문화권이기에 때문에 같은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

[그림 6] 수업 후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인식 분석

는 사실에 놀라움, 이웃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여행을 통해 느끼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 등 이었다. 한·일·중 간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이웃 나라들에 대한 무지의 깨달음, 여행에서 느낄 수 없었던 문화적 차이의 인식 등을 통해 볼 때, 본 수업은 대중매체나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한·일·중 간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게 한 계기였으며, 동시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수업이었음을 보여준다.

Ⅲ. 본 수업의 의의 분석

본 수업은 다음의 3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첫째, 일본과 중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향상이다. 관심과 흥미도의 향상은 일본과 중국에 대한 지적 기반 마련 및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형성의 기반 마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나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 획득은 앞으로 한·일·중 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본 수업은 일본과 중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의 향상으로 앞으로 일본과 중국 친구들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문화 다양성 인식이다.

그간의 학교 교육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동질성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인을 만나거나 이들 지역에서 겪게 되는 다름에서 겪는 갈등의 경험은 이들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같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일지라도 구체적인 생활습관과 인간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와 지리적 환경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의 의미를 인식하게 한 수업이다. 동아시아 문화권 범주 안에서 같은 유교문화권 지역으로서 동일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지리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발달 문화는 다름을 인식하게 한 수업이다. 학생들의 반응 중 ‘이웃 나라이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나라들이라고 해서 같은 생활 문화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도 많구나.’라는 반응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는 좋은 수업이었음을 보여준다.

IV. 논의: 동아시아 상호 이해 교육의 과제

한·일·중 삼국은 거리상 가장 가깝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여 문화적 유사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친 식민의 역사와 같은 끝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의한 갈등, 중국의 동북공정과 해역에서의 갈등, 북한 관련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정치적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일·중

의 동아시아의 공간도 그 일부에 속해 있다(남호엽, 2011, 115).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문화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그간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보는데 주력해 왔다. 학생들의 수업 후 반응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로 다름에 대한 놀라움과 관심, 흥미도의 향상은 한·일·중 상호 교류적 측면에서 그리고 상호 이해의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둘째, 한·일·중 상호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제고이다. 정치적인 과거사와 현재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갖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를 더 잘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웃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과 사회관광의 목적으로 상호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더 쉽게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비해 오히려 지식의 양과 질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지평 확장이다. 학교 교육과 학습자 경험과의 연계성 문제는 학교 교육의 사회 적실성 혹은 유용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언제 어떤 경험을 하는데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논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류재명, 2002, 2). 그간 문화 다양성 교육은 전통 문화, 그 중에서도 외현적으로 드러난 의식주 문화에

한정하였다. 전통 문화의 다양성은 지금 현대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학생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소 원시적이고 미개하다는 이미지와 현실성이 떨어진 비현실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더러 자칫 현재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왜곡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 교육은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생활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실천적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적실성을 반영한다. 그간 외현적으로 드러난 의식주 위주의 전통 문화 기반의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현실적 이면서도 실천적 차원에서의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의 지평을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V. 결 론

인간관계에서의 생활습관 문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한 주제들은 주로 3국 학생들의 일상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문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표면적인 생활습관이나 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면에 내재된 상대방의 가치관, 관점, 인식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인식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3국 상호간 상호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3국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주제로서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의 관련성이 크고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가족

관계와 친구관계 문화를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해 한·일·중 학생들의 상호 문화 인식 조사 결과 중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서의 생활습관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이해를 위한 수업실천 방안을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본 수업의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본과 중국에 대한 흥미도와 관심도의 변화, 그리고 수업 후 일본과 중국 문화에 대한 생각을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수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전 일본과 중국에 대한 흥미도와 관심도는 아주 낮았다. 일본과 중국 모두에 대해 48.6%의 학생들이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편이거나 전혀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수업 후에는 일본이 28.5%, 중국은 37.2%로 각각 감소하였다.

둘째, 수업 전 학생들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는 일본에 대해서는 방사능, 지진, 만화, 요리, 학교생활, 전자 기술 등 사회적 이슈 또는 일상생활 관련 문화들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도 사막, 음식, 많은 인구, 만 장성 등 지극히 부분적인 일상생활 관련 문화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업 후 학생들의 반응은 한·일·중 간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이웃 나라들에 대한 무지의 깨달음 등 이웃 나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의 향상 뿐 아니라 흥미와 관심의 대상을 외연적으로 확장시켜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수업이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와 지리적 환경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의 의미를 동시에 인식하게 한 수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 범주 안에서 같은 유교문화권 지

역으로서 동일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지리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발달 문화는 다름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고 동시에 상호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깨워 주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일·중 문화 이해를 위한 수업 사례를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표본 추출에 의거한 대상 선정 및 통계 분석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일·중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접근 방법은 지리적 환경과 동아시아 지역으로서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큰 스케일에서의 동아시아문화권 지역이 갖는 문화적 공통점과 더불어 구체적인 문화적 실천에서의 차이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적 접촉과 문화적 실천 과정에서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 학생들의 관심분야 조사에서도 분석되었듯이 현실성 있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간관계에서의 생활습관 문화 중심의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창숙(2012). 중국의 지리교육과정 변천과 지리과정표준의 구성체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217-231.
- 권오정(1998). **국제화시대 인간 형성**, 서울: 배영사

- 김다원 외(2011). 인간관계와 생활습관을 주제로 한 한·일·중 교재개발, **제12차 국제이해교육학술대회 자료집**, 185-191.
- 김다원(2011). 동아시아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시론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6**(1), 100-114.
- 김다원(2010). 사회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문화 다양성'수업 내용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2), 85-97.
- 남호엽(2011). 오키나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사회과 교육, **사회과교육**, **50**(1), 115-118.
- 류재명(2002). 학생의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리 수업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1-16.
- 류제현(2007). 동아시아 문화지역의 역사-지리적 설정, **대한지리학회지**, **42**(5), 728-744.
- 외교통상부(2011). 재외동포현황 통계, <http://www.mofat.go.kr/>
- 한경구(1996). 동아시아적인 것을 찾아서?, **문학과 사회**, 36, 1716-1741.
- 황지숙(2007). 상대화 시각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 방안, **역사교육연구**, **5**, 81-132.
- 諏訪哲郎(2010). 한·일·중 의무교육단계에 있어서의 세계지리교육, **사회과 교육연구**, **15**(2), 149-170.
- 金多媛 外(2012). 日韓中の 協働によるの國際理解教育 カリキュラム・教材の開發, 第22回 日本國際理解教育研究大會 研究發表抄録, 59-60.
- Hall, S.(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 and signifying practices*, Sage, London
- Standish, A.(2009). *Global perspectives in the geography curriculum*, Routledge, NewYork.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practice
for mutual understanding of South Korea,
Japan and China centered on human relationship**

Da-won Kim

(Teaching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hin-hye Heo

(Assistant Professor,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a result of class using the data with regard to the cultural recognition in the family or friend relationship among the studen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 were shown in the two categories as follow: First, the class was conducted with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which shows the common ground and difference in terms of the culture, in order to raise the attitude of generosity and consideration and then to prepare the ground for mutual understating. Second, the class focused to the human relationship and human habit as the cultural factors which raise the connectivity with the daily life among the students and enhance their social adaptability. The concrete effects on the class were seen as follows:

First, after the class, the students' interest and/or attention on Japan and China were enhanced. The enhancement of interest and attention on the nations would be a psychological ground for extending the information on

the two nations and solving the common problems between the ones.

Second, the education boundary on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was extended from the traditional culture and industry to the daily life regarding human relationship and human habit.

Third, the viewpoint on East Asia was changed. In other words, generated was the recognition that the East Asia is not only a cultural area with common cultures but also a geographical area where a variety of cultures can be developed.

Through these above results, this class is thought to show some effects in presenting a new direction with regard to a class for the cultural diversity in the East Asia as well as to open the students' minds for understanding mutually the three n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Key words : East Asia culture, human relationships, human habit, cultural diversity, social studies education

투고신청일 : 2012. 10. 22

심사수정일 : 2012. 12. 09

게재확정일 : 2012. 12. 12

〈부록〉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한 한·일·중 학생들의 설문 결과
(한국: 수도권 중학교 1학년학생 200명, 일본: 니가타 현 소재 중학교 1학
년 119명, 도쿄 소재 중학교 1학년 80명, 중국: 베이징 소재 중학교 162명)

〈사례 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자료 1】 오늘(5월 31일)은, 중학생인 Y의 할아버지 생신입니다.
 저녁에 Y의 집에서는 가족과 친척이 모여서 생일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Y는 할아버지 생신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인 K가 함께 축구를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그 친구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한참 축구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할아버지 생신파티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Y는 친구인 K에게 「미안해,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파티가 있어서 이제 가야 해!」라고 하고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친구와 축구를 하느라 늦어졌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Y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할아버지의 생신파티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벌써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Y의 가족과 친척은 생신파티의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1】 Y가 할아버지의 생신파티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A~E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 주세요.
 A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B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C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D 괜찮다

	A	B	C	D	계
한국중학생	18%	33%	41%	8%	100%
일본중학생	21%	57%	15%	7%	100%
중국중학생	31%	57%	10%	2%	100%

【문 2】 노인들이 체험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A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 중요한 편인 것 같다.
 C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D 중요하지 않다

	A	B	C	D	계
한국중학생	10.5%	67.5%	13.5%	8.5%	100%
일본중학생	42%	85%	11%	4%	100%
중국중학생	41%	51%	6%	2%	100%

〈사례 2〉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문제 1】

수업 중, 친구가 여러분의 필통에서 말없이 볼펜을 꺼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A 친구라고 해도 실례되는 행위이다. B 기분이 좋지 않다.
C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D 친구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A	B	C	D	계
한국	29.5%	30.5%	32%	8%	100%
일본	39%	30.5%	23%	7.5%	100%
중국	41.5%	8.5%	29.5%	20.5%	100%

【문제 2】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친구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A 제 시간에 맞춰 오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B 5분 정도 늦는 것은 괜찮다.
C 15분 정도 늦는 것은 괜찮다.
D 30분 정도 늦어도 괜찮다.

	A	B	C	D	계
한국	10.5%	68.5%	17%	4%	100%
일본	8%	71.5%	18.5%	2%	100%
중국	9%	63%	19.5%	8.5%	100%